

May 2017 subject reports

##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Overall grade boundaries

### Higher level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 - 14	15 - 31	32 - 45	46 - 58	59 - 71	72 - 84	85 - 100

### Standard level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 - 14	15 - 30	31 - 45	46 - 59	60 - 70	71 - 84	85 - 100

Internal assessment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 - 4	5 - 9	10 - 13	14 - 17	18 - 20	21 - 24	25 - 30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Individual Oral Commentary 의 작품은 Part 4 에서 공부한, PLA 목록에 있는 작가의 작품이어야 한다. 모든 학교가 PLA 의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그 범위가 적절하였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제출되었다. 시의 경우, 운동주의 작품이 가장 많았고 김소월, 정지용 등의

작품이 뒤를 이었다. 소설의 경우는 김유정, 현진건 등의 작품이 많았고, 수필은 피천득의 작품이 많았다.

학생의 commentary 와 업로드된 발췌문이 일치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반드시 학생의 commentary 와 일치하는 발췌문을 업로드해야 할 것이다.

Commentary 는 10 분, 토론은 5 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어느 학교의 경우 15 분이 경과한 후에도 교사의 subsequence question 이 이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Subsequence question 은 학생의 commentary 를 개선하거나 확장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작가의 배경을 묻거나 학생의 commentary 를 반복하여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학생의 개인적인 감상이나 느낌 등을 묻는 것도 토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교사가 질문하고 교사 스스로 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Guiding Question 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어느 경우는 학생 commentary 전에 교사가 질문을 읽으며 시작한 학교가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발췌문은 40 줄이 넘지 않도록 하며, 줄 번호를 넣어 학생들이 인용할 때 용이하도록 해야 하는데, 줄 번호를 넣지 않은 발췌문이 있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볼펜 소리, 휴대전화 알림 소리 그리고 주변의 소음으로 commentary 의 녹음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교사의 토론 질문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적절하지 않았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text or extract

이 평가 항목은 발췌문의 이해와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절한 근거와 함께 발췌문을 분석하였다. 작가의 성장 배경과 시대적 배경의 도입으로 시작한 commentary 도 있었으나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대부분 발췌문과 관련해 적절한 도입으로 시작하였다.

대체로 문학 장르의 배경 지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발췌문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어느 경우, 발췌문에서의 근거를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commentary 를 구성한 경우가 있었다. Commentary 는 반드시 발췌문 중심의 발표가 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 해당 발췌문의 지식과 이해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발표하거나 발췌문을 단순 요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해와 지식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commentary 중간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발췌문의 작품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보다는 발췌문 중심으로 충실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 Understanding of the use and effects of literary features

이 평가 항목에서는 단순한 문학 용어의 설명이 아니라 발췌문에 사용된 문학적 장치가 어떻게 그 내용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발표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시 문학을 commentary 한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드러나게 수행했다. 그러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문학 용어를 단순히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소설의 경우,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정의를 설명하거나, 사용된 어조, 상징, 문체 등을 단순히 언급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한 경우도 있는데 이보다는 그것들의 사용 효과에 대해 commentary 해야 할 것이다.

### Organization

대부분이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구성하였다. 서론에서 자신이 분석할 발췌문을 소개하고 논리적인 전개로 본론을 구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 작품의 시대적 배경의 설명에 치중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췌문에 없는 등장 인물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발췌문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작품 전체에 대해 설명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발췌문 또는 작품 전체의 줄거리 요약은 효과적인 구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의 commentary 가 10 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끔 결론을 명확히 마무리 짓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효과적인 구성이라 할 수 없다.

### Language

대체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 장르에 맞는 문학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문학 용어의 사용은 중요하다. 문학 분석에 필요한 어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길고 장황한 설명보다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췌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학생의 commentary 가 작품의 줄거리 또는 발췌문의 요약 정도에 그치는 commentary 가 있는데 발췌문 중심의 분석이 되도록 지도하고, 10 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연습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의 commentary 와 업로드된 발췌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IB 에 업로드해야 할 것이다.

발표 후에 이어지는 교사의 subsequence question 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분석 중 빠뜨린 부분이나 오류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 주제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 등을 이 토론시간에 질문함으로써 학생의 이해와 지식이 충분히 드러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발췌문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교사가 추가 질문을 하지 않거나, 발췌문과 깊은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질문을 한 후에는 학생의 답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이 바로 답을 하지 못한다고 기다리지 않고 교사 스스로 답을 해 주거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IOC 의 전체 시간은 15 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 이미 15 분이 넘었는데도 교사가 추가 질문을 하였다. Commentary 10 분, 토론시간 5 분으로 전체 15 분의 시간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Higher level written tasks

###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 - 5            6 - 11            12 - 18            19 - 23            24 - 28            29 - 33            34 - 40

## Written Task 2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6 개의 질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는 점은 바르게 이해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 예를 들어, “How could the text be rea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by two different readers?” 라는 질문은 가이드북 p.45 의 예시처럼 구체적인 독자를 설정하고 본문의 논지를 뒷받침할 연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글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라면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문장으로 충분한 조사와 근거자료 없이 과제를 수행했다.

Korean A : Language and Literature 의 텍스트는 가이드북에 정의된 대로, 추출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얻은 어떤 종류의 정보라도 될 수 있으며, 이는 구술/문서/시각/청각 자료를 매우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Task 2 에서 선택한 텍스트와 질문의 유형이 매우 다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 Criterion A : Outline

Outline 의 필수요소는 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이미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채점영역에서 2 점을 못 받은 이유는 마지막 3-4 개의 key points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key points 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중점 내용과 응답의 방향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실제로 본문의 내용도 이와 일치해야만 한다.

#### Criterion B: Response to the question

Task 2 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령,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규정 질문인 “How and why is a social group represented in a particular way?”의 경우, 그 응답에서는 ‘어떻게’와 ‘왜’가 모두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하며, social group(women, children, senior citizens, immigrants 등)이 그 대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 Criterion C: Organization and argument

이 채점영역에서는 학생들의 글이 논리적으로 조직되었는지, 그리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구성을 보였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Task 2 는 에세이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드시 서론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논지를 분명하게 발전시킨 뒤 결론을 맺는 구조를 보여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잘 숙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틀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글의 통일성을 지키지 못한 글들도 꽤 보였다.

### Criterion D: Language and style

Task 1 과 비교했을 때 적합한 어휘의 선택이나 문장의 구조, 그리고 언어 사용 능력 등이 훨씬 우수했다. 하지만 최종 제출 전에 맞춤법과 띄어쓰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면 더 훌륭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교사는 Task 2 를 지도할 때, 과제의 제출 양식과 요령에만 중점을 두어 안내하지 말고, 그 목적과 맥락을 강조하여 함께 안내해 주어야만 한다. 즉, 선택한 질문이 어떠한 맥락에서 도출된 문제 유형인지를 함께 설명하고 지도해야만 학생들이 질문의 의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탐구 방향은 가이드북 p.43 의 “Areas of study for task2” 에 잘 제시되어 있다.

Task 2 의 Outline 은 반드시 수업시간에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academic honesty 를 교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이므로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Outline 은 그 외형적 틀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이드북 p.43 를 참조하여 해당 구성요소를 모두 쓰도록 한다. 더불어 교사는 비단 외형적 틀 뿐만 아니라, 글의 통일성의 중요성 등도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과제를 위한 텍스트와 Prescribed question 의 선택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선택에 대한 조언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 Standard level written task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 - 2	3 - 5	6 - 9	10 - 12	13 - 14	15 - 17	18 - 20

### Written task 1 (HL/SL)

#### 제출된 작품의 범위와 적합성

Standard Level 의 경우, 언어 영역보다 문학 영역에서 수행한 과제의 분량이 더 많았다. 학생들은 배웠던 모든 파트를 토대로 3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Higher Level 의 경우, 만일 Task 1 을 언어 영역에서 골랐다면 Task 2 는 반드시 문학 영역에서 선택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Task 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언어 영역에서 Task 1 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Task 1 은 각 파트에서 다뤘던 텍스트를 토대로, 주제를 적합한 텍스트 형태(text type)로 바꿔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되, 이를 통해 학생의 지식과 이해력을 증명하는

과제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언어 영역에서 Task 1 을 수행한 경우, 이를 언어와 관련 짓지 않고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현상 혹은 이슈 그 자체를 다룬 부적합한 사례가 많았다.

두 레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각급 학교에서는 반드시 Work 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Work 란 1 권의 장편, 2 편 이상의 중편, 5-10 편의 단편, 5-8 편의 수필, 15-20 편의 시 등을 의미한다.)
- Rationale 혹은 본문의 단어수를 하단에 기입하지 않거나, 심지어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학생들이 업로드하기 전에 교사가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 본문 혹은 rationale 에 학교 혹은 학생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내용을 기입하면 안 된다.
- 과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학생이 설정한 맥락에 따라 한자나 영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고, 이 경우 한자는 글자수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 과제를 위해 사용된 텍스트(primary source)는 다른 언어나 문화권의 것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한국의 문화나 미디어 등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일기나 편지 형태를 여러 편으로 나누어 쓴 경우, 하나의 텍스트만으로 깊이 있게 써낸 과제에 비해 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텍스트를 여러 개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물론 학생이 설정한 문맥과 상황에 따라 그 차이가 있겠지만, 제한된 단어수 안에서 여러 개의 짧은 텍스트를 통해 과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

### Criterion A: rationale

대부분의 학생들이 rationale 을 작성했지만, 가이드북(p.41)에서 안내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시킨 학생은 많지 않았다. 학생들은 Task 1 의 내용이 배웠던 파트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과제가 코스의 어떤 부분을 탐구하려고 하는지, 독자와 목적은 무엇이며, 텍스트 형태와 그 선정 이유, 그리고 과제에 설정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반드시 모두 설명해야만 한다. 또한 과제의 목적을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상 독자를 ‘10 대’ 등 추상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Criterion B: task and content

많은 학생들이 참조한 텍스트도 없이, 상상력에 의한 상황이나 인물 등을 설정해서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언어 영역에서 제출한 과제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았는데, 어떤 텍스트를 참조하여 과제를 진행했는지는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반드시 밝히고 그 연관성과 이해도를 증명해야 한다.

블로그나 오피니언 칼럼을 과제의 텍스트 형태로 선택했지만, 텍스트 타입의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만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그 입장에서 글을 쓴다고 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석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흥내를 내야만 한다.

**Criterion C: organization**

이 영역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구성력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썼으나, 이 과제에서 사용된 텍스트나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채점하기가 매우 어렵다.

**Criterion D: language**

학생들이 선택한 어휘와 문장은 과제의 내용과 문맥, 그리고 텍스트 유형과 어울려야만 한다. 즉, 편지글과 오피니언 컬럼에서 사용한 어휘와 글의 구성은, 편지와 칼럼이 갖는 장르적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야만 한다.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정확한 어휘 사용과 맞춤법 등에 대한 교정과 검토가 중요하다.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학생은 제출할 파일에 배웠던 작품을 기입할 때, 이를 ‘-외 4 편’ 등으로 작성하지 말고, 배웠던 작품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한국어 과제의 단어수에 대한 안내(영어의 단어수 변환 비율 1:1)가 이미 공지가 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학생의 점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Rationale 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당 과제와 연계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불명확하다. 이는 비단 rationale 에서 뿐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채점자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에서 무엇이 어떻게 의도되었고 무엇을 과제로 도출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만 한다.

Task 1 은 그 기반이 되었던 텍스트(primary source)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거나 심지어 없는 학생들도 종종 보였다. 이 과제는 상상력에 의존한 창작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의도된 바대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Higher level paper one**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 - 3	4 - 7	8 - 10	11 - 12	13 - 15	16 - 17	18 - 20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 텍스트를 이해하고 문맥, 독자, 목적, 형식 등을 다루었으나 두 텍스트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의 비교, 대조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험은 두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고 대조하는 부분이 드러나야 하는데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설명과 열거에

그쳐, 깊이 있는 비교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 올해는 모든 텍스트에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었지만 그 이해와 분석이 단순한 경우가 있었다. 이미지가 사용된 것만을 언급하거나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에만 그친 경우가 있었다. 시각적 특징이 두드러진 텍스트라면 그 특징의 설명과 함께 효과까지 분석해서 텍스트의 주제와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올해 문제 1을 선택한 학생이 문제 2를 선택한 학생보다 적었다. 그리고 문제 1의 텍스트 B를 잘 이해한 학생이 많지 않아, 시의 분석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텍스트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교 대조의 분석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 2를 선택했다. 문제 2의 텍스트 C와 D는 그림, 미술, 색채에 대한 텍스트로, 시각적 특징이 두드러진 요소였지만 학생들이 통찰력 있게 분석하지 못했다. 특히 텍스트 D에 사용된 이미지의 분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텍스트에 사용된 색/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글쓴이의 의도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험에서 다루어야 독자, 형식, 문체, 목적 등에 대해 잘 설명했다. 하나의 텍스트에 치우치지 않고 두 텍스트 모두를 단락별로 나누어 다루었다. 글의 종류와 어조, 문체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단락별로 잘 구성된 답을 보였다. 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알맞게 썼다. 특히 Criterion D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수행했다.

##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1번 문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두 텍스트의 글의 종류, 형식, 목적, 맥락 등의 대해서는 대체로 잘 이해했다. 형식적 요소, 특히 텍스트 A의 문체와 형식의 특징을 잘 이해했다. 그러나 텍스트 B의 시문학의 특징은 대체로 학생들의 이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운율, 상징, 시어의 분석 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Higher Level의 Paper 1은 두 텍스트의 비교 대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텍스트 A를 분석한 후 그 다음 텍스트 B를 분석하고 에세이를 끝마치는 경우가 있었다. 두 텍스트의 중요하고 두드러진 요소를 이해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텍스트의 시각적 요소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두 이미지의 비교 분석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통찰력 있게 분석하지 못했다.

2번 문제를 선택한 학생이 더 많았다. 대부분의 학생이 두 텍스트의 형식, 문체, 독자, 목적에 대해 다루었으며 텍스트에서 그 근거를 뒷받침했다. 많은 학생이 텍스트 C, 신문 기사 텍스트의 형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텍스트의 종류와 형식적 특징을 잘 설명했다. 특히 텍스트에 있는 색깔과 표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텍스트 D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해 쓴 학생은 많지 않았다. 사용된 이미지가 내포한 의미를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그 효과까지 분석한 학생이 많지 않았다. 또한 두 텍스트의 비교 대조 부분에 있어 충분히 분석을 하지 못해, 비교 대조 부분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텍스트를 모두 다루었으나 비교 대조의 부분에서는 충분한 분석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시험은 반드시 두 텍스트의 비교 대조 분석이 있어야 한다. 한 텍스트를 설명하고 다시 다른 하나의 텍스트를 설명하며 마치는 답들이 있는데 이보다는 두 텍스트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서 쓰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질문의 요소들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며, 통찰력 있는 비교 대조의



분석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각 평가 항목을 잘 이해하고 에세이를 쓰면 자신이 놓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이 평가 항목별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연습하면 좋을 것이다. 문학 작품이 포함된 문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학 장르의 이해가 드러나도록 써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평소에 개요를 작성한 후 글을 쓰고, 다 쓴 후에는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 보고 반복,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연습하면 좋을 것이다.

가끔 글씨를 흘려 써서 알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알아 볼 수 있도록 쓰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 Standard level paper one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 - 3	4 - 6	7 - 8	9 - 11	12 - 13	14 - 16	17 - 20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텍스트의 종류, 독자, 목적 등에 대해 잘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과 문체의 설명에 있어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텍스트의 형식적 특징의 이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어조에 대해 설명은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주제와 연결 짓지 못해,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텍스트 2는 언어적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을 작가의 의도, 주제와 연결시켜야 하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설명만 하는데 그치거나 어조, 문체 등을 단순 기술하여 깊이 있는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텍스트 1의 경우,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텍스트와 주제의 이해로 효과적으로 전개되지 못해서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순 나열의 설명으로 인해 논리적 전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텍스트의 형식과 문맥에 대해 열거해서 설명하지만 그 근거의 뒷받침이 부족해 논리적인 전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언급하지만 그 효과의 분석은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사진이나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효과가 어떠한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하는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해야 할 요소들을 모두 다루었다. 텍스트의 종류, 목적, 독자 등의 이해가 드러나 Paper 1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그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지식이 대체로 잘 드러났으며 제목, 어조, 문체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답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썼고 적절하고 알맞은 어휘를 사용하여 답했다.

###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텍스트 1 을 선택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 텍스트 1 을 선택한 학생들은 블로그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고 답을 썼으며 제목과 글씨의 크기 등 형식과 구성에 대한 지식이 드러나게 답을 했다. ‘SNS 시’에 대해서도 잘 이해했고 그 특징과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썼다. 그러나 ‘디카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학생은 많지 않았다. ‘디카시’가 무엇이며 그 탄생의 배경이나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한 부분은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미지/사진의 설명은 대부분 적절하게 했으나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그 효과까지 분석한 답은 많지 않았다.

텍스트 2 를 선택한 학생들은 오피니언 칼럼의 특징에 대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형식적 요소를 설명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논했다. 또한 맥락에 대해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대부분 텍스트에 드러난 한국식 나이에 대해 이해하고 썼다. 그러나 텍스트에서의 존댓말과 나이, 지위, 친분 관계에 대한 이해는 깊이 있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글쓴이의 태도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깊이 있게 답한 학생은 많지 않았다.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적 전개가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올해 Standard Level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텍스트의 형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식과 구성의 설명에만 집중을 한 답도 많았다. 제목과 글자의 크기, 배치 등은 잘 썼는데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각 요소에 대해 단락별로 다루었으나 근거의 뒷받침과 글쓴이의 의도, 주제와의 연결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이미 언급된 내용이 다른 단락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리 개요를 작성한 후에 글쓰기를 하면 좋을 것이다. 한 단락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산만하게 거론되지 않도록 쓰면 좋을 것이다. 어느 경우, 결론을 쓰지 않은 학생이 있었는데 평소 수업 시간에도 개요를 작성해서 쓰도록 하고 서론, 본론 결론을 반드시 쓰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가끔 글씨를 흘려 써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알아 볼 수 있도록 쓰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 Higher level paper two

### Component grade boundaries

Grade:	1	2	3	4	5	6	7
Mark range:	0 - 4	5 - 8	9 - 11	12 - 15	16 - 18	19 - 22	23 - 25

## Standard level paper two

### Component grade boundaries

<b>Grade:</b>	1	2	3	4	5	6	7
<b>Mark range:</b>	0 - 4	5 - 9	10 - 13	14 - 16	17 - 20	21 - 23	24 - 25

### Paper two higher level / standard level (combined report)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하였고 공부한 작품을 바탕으로 답을 했으나 그것이 줄거리를 위주로 한 내용의 요약 수준에 머문 경우가 있었다. 두 작품의 줄거리를 차례로 소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작품을 주제적으로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에세이로 구성해 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두 작품에 대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장황하게 펼쳐놓는 경우들도 있었다. 질문 자체의 의미를 명료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못 이해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작품 속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작품의 줄거리를 질문과 연관 없이 전개하여 글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문학적 장치에 대해 설명은 하고 있으나 그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 특정 문학적 장치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 아닌 작품의 주제와 연결하여 그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몇몇 특정 작품들과 그와 연관된 문학적 경향들을 다룰 때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위대한 개츠비’나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과 ‘이방인’이나 ‘페스트’ 등에 나타난 ‘부조리’와 ‘실존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언급은 하지만 작품과 연관하여 깊이있게 분석해 내는 것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프로그램과 시험의 영역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두 작품 이상을 균형있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확한 언어와 알맞은 어휘로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어, 언어 사용에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에세이의 구성도 대체로 일관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전개를 하였다.

올해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문학적 장치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평가 항목 C에 대한 준비를 잘 한 것으로 보인다.

## 학생들이 각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올해의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까다롭지 않았고, HL 과 SL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골고루 선택하여 답을 하였다.

- Q.1 번은 작품에서 고정관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데, 주로 작품에 사용된 고정관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그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아쉬운 경우가 많았다.
- Q.2 번은 작품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진화/발전하는지에 관한 문제인데, 인물들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들은 대체적으로 좋았으나, 정작 질문의 초점인 인물들의 진화/발전 양상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 Q.3 번은 “문학작품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관해 논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잘 표현했으나, 주어진 주장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못한 채로 글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 Q.4 번을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제나 중심사상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였으나 그 주제나 중심사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심상이나 비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해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 Q.5 번을 선택한 많은 학생들 중에는 ‘서로 다른 세대’의 개념에 대해 잘 못 이해한 채로 에세이를 전개한 경우들이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세대’를 ‘시대’로 오해한 경우이다.
- Q.6 번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문제로 특정 사회 또는 정치적 맥락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기법에 관해 답하는 문제이다. 대부분 맥락 자체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였으나, 그 맥락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기법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분석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질문의 의미를 좀 더 신중하고 주의깊게 파악하여 글을 쓰면 좋을 것이다. 질문의 한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질문 전체의 요건에 잘 맞추어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과 길잡이

Paper 2 는 질문과 관련하여 Part 3 의 작품을 근거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시험이다.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의 에세이가 작품의 요약 설명이나 줄거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구성이라 볼 수 없다.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잘 이해하여 그에 맞게 효과적으로 에세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과 상관 없는 작품에 대한 단순하고 장황한 설명은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

학생의 주체적이고 고유한 에세이가 되도록 지도하고 평가 항목별로 피드백을 주어 학생들이 각각의 평가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아주 가끔 글씨를 너무 흘려 써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었다. 글씨를 예쁘게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볼 수 있게 쓰는 연습은 필요하다.